

#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예상매출 제공 의무화

##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6월 국회 처리 합의 점주들 “환영”...가맹본부 “독소조항” 반발

광주시 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52)씨. A씨는 병으로 직장을 그만둔 남편을 대신해 시작한 편의점 운영때문에 애를 태워야 했다. 최소 월 5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가맹본부의 얘기와는 달리 생계유지는 커녕 오히려 가맹본부의 노예계약이나 다름 없는 불공정 거래 조건으로 손과 발이 완전히 묶여 버렸다.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무조건 24시간 영업을 해야하는 방침도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야 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

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시정하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상정된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의점 점주 등 중·소상공인들이 반기고 있다.

7일 국회 정부위원회는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인 이른바 프랜차이즈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일 임시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두 민주당법안위원이 중심이 되어 상정된 프랜차이즈 법안은 ‘현대판 지주·소작제’로 비유되는 편의점 점주와 본사와의 관계에서 점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랜차이즈 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편의점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을 의무화하지 않고 구두 설명에 그치면서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 부풀리기’를 입증하지 못해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었다.

그러나 앞으로 서면 제공이 의무화되면 가맹점의 실제 매출이 예상매출

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대형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법안과 관련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은 법안에 새로 포함된 ‘예상 매출액의 서면 제시 의무화’는 독소조항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예상매출과 실제 매출이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경우 허위 과장광고로 간주되며 벌칙금도 현행 1억5000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독소조항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참여연대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관계자는 “가

맹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은 유보된 점은 아쉽다”면서도 “대신 대형 가맹본부에 한해서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정보를 반드시 서면제공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됨으로써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인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월 매출과 수익의 일정 금액 이상 보장’이라는 명백한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주를 불안정한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에 끌어들이고 피해를 입게 해오던 가맹본부의 책임 인식이 깊어졌다”며 “서면 제공이 의무화되면 대기업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농어촌공, 영산강권역 발전 워크숍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운)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장성 백양관광호텔에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공사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권역 미래농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주시, 전남도,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공사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영산강유역 농

업생산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종합정비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노후 시설의 기능복원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 농촌발전을 모색했다.

총 사업비 4604억원이 투입될 영산강권역 미래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맞춤형 급수체계 및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잠이 솔솔~ 여름 이불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휴먼센터 매장에 톱퉁이 잘 되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특한 여름용 이불이 선보여, 고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대형마트 쉬면 영세상인 매출 ‘쑥’

### 1694곳 조사...전통시장은 평균 10% 늘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에는 중소 소매업과 전통시장의 매출액·고객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경영진흥원(원장 정석연)과 소상공인진흥원(원장 이용두)이 지난달 28일 대형마트·SSM 주변 중소 소매업체 694곳과 전통시장 내 점포 1천 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중소 소매업체·전통시

장의 평균 매출과 평균 고객 수는 휴무일이 아니었던 전주(4월21일)에 비해 각각 9.1%, 8.7% 늘어났다.

특히 전통시장의 평균 매출은 11.1%, 평균 고객 수는 11.3% 각각 증가했다.

실제로 중소 소매업체와 전통시장은 이날 점포·상품 여건에 따라 상품 판매가를 10~305 할인하고 상품권·쿠폰·경품 증정 등 고객참여 행사를 시행한 것도 매출 향상에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규제 강화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은 중소 소매점포와 전통시장으로 고객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골목슈퍼를 대상으로 상품전열과 재고관리 컨설팅, 공동브랜드·공동 구매·공동마케팅 등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동마케팅·특가판매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4월 보금자리론 공급 1조7천억

### 전년보다 두배 증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금리인하 효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고정금리대출인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크게 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4월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1조6817억원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2004년 출시 이래 지난해 12월(1조8969억원) 이후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4월 공급액은 전월 대비로는 53.7%(1조945억원→1조6817억원),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3.6%(7874억원→1조6817억원) 증가했다. 하루 평균

공급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4월 하루 평균 공급액은 약 394억원이었으나 올해 4월에는 764억원으로 두배 가까이로 뛰었다.

우대형 보금자리론 공급액도 지난해 12월(6703억원)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많은 4869억원을 기록했다.

공급액 급증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추진으로 실수요자 거래가 늘어났고, 보금자리론 금리가 지난해 1월부터 0.2%포인트 추가 인하돼 최저 2.8%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당분간 보금자리론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 aT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광광역협·일로농협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광주전남지사는 소비자참여형 직거래사업 대상자로 전남 광광역협농협과 일로농협등조합 등 2개소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참여형 직거래사업은 국내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 및 농업인,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8일까지 사업자 지원신청을 받아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공동작업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총 71억원을 지원(융자·보조) 받으며, 이 가운데 전남 2개 업체는 15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김대성기자 bigkim@

# 전남농협 ‘농·축협 사고예방 워크숍’



농협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위원장 이부근)는 지난 3일 전남 관내 농·축협을 대상으로 전남지역본부에서 농·축협 감사 실무자와 농협 전남감사국 감사역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예방 워크숍’을 가졌다.

<전남농협 제공>

### 새얼굴

## “서민·중소 금융지원제 정착 최선”

최금환 금감원 광주지원장

“서민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일 취임한 최금환(53)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은 “우리지역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와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경영지도 위주의 감독 및 감사를 실시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권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지원장은 “다문화가

정, 고용센터, 교도소 등 경제적 약자 권의 보호를 위해 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출신인 최 지원장은 대전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한 뒤 금감원 회계제도실 실장,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

www.yonhapnews.co.kr

## 연합연감 2013년판 출간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종합연감인 ‘연합연감 2013년판’이 출간됐습니다. 연합연감 2013년판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보유한 방대한 자료를 담은 것으로, 130여 명의 필진이 참여해 2012년 한 해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분야별 주요 사건과 사고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2012년 대선을 집중 조명한 특집 「2012 국민의 선택 18대 대선 드라마, 박근혜 대통령 당선,과 함께 ‘전 세계를 충추게 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가계부채 1천조 ‘시한폭탄’... 경제위기 고조’, ‘세종시 과거·현재·미래-세종시대 개막’, ‘런던올림픽 5위... 원정 최고 성적 거뒀’ 등 주요 이슈를 초점으로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본문에서는 국내외 분야별 뉴스 및 현황, 일지, 연표 등과 함께 통계·일람, 주요 연설 및 발표문,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화제의 인물, 주요 사건·사고별 일지 등의 자료를 엮어 수록했습니다.

북한 편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빠르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김정은 권력승계’와 전 세계의 우려 속에 강행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체제의 당·정·군 조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북한 권력 기구도와 북한 주요기관 및 단체장 명단 및 2012 북한 10대뉴스, 일지, 역사, 연표, 주요 인물 동향 등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특히 ‘2013년판 연합연감’은 분야별로 보다 상세한 기사 및 사진, 그래픽, 통계 등 풍부한 자료를 곁들여 증진했으며, 케이스를 제작해 책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파손을 방지하는 등 변화를 꾀했습니다. 내용면에서도 독자의 지루함을 덜고,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진과 통계, 그래픽, 도표 등을 다채롭게 곁들여 시각적으로 향상된 편집을 지향했습니다.

**구입 문의**

서울 (02)398-3590~3  
강원 (031)569-7788

경기 (031)238-2222  
전주 (063)232-7652

인천 (032)427-1236  
경남 (055)281-0010

대전·충남 (042)521-9705  
부산·울산 (051)441-7400

광주 (062)264-0064  
대구 (053)355-3800

청주 (043)225-5005

■ 4×6배판 양장본, 총 1천 260쪽

■ 가격 : 15만원